

민주 이재명 대선 후보 전북 7대 공약엔 무엇이 담겼나?

'올림픽 지원·새만금 RE100 산단'

첨단산업 육성·금융특화도시·공공의대 신설도

도내 14개 시·군 우리동네 공약도 제시·발표

민주 도당 "전북이 한층 발전되는 데 기여할 것"

제21대 대통령 선거(대선)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2036년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지원과 첨단전략산업 육성 등을 담은 '전북 7대 공약'을 공식 발표했다.

24일 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이원택 국회의원) 등에 따르면 이 후보는 7대 전북특별자치도 공약은 물론 역대 최초로 전북 14개 시·군 공약을 제시했다.

이 후보가 발표한 7대 전북 공약은 △2036년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K-컬처 메카 육성 △첨단전략산업 육성, 신산업 테스트베드 구축 △새만금 RE100(재생에너지 100%) 국가산업단지 조성, SOC 조기 완성 △대한민국 농생명산업 수도 육성 △금융특화도시 조성 및 공공의대 신설 △사통팔달 교통·물류 전북광역권 인프라 구축 △탄소중립 선도 미래도시 조성 등이다.

이 후보는 2036년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성공을 위해 국가적 지원체계 구축을 바탕으로 K-컬처 메카로 육성하고 초광역권 연결망 확대를 글로벌 전북의 미래를 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인공지능(AD) 연계 융복합산업 등 첨단전략산업 육성과 신산업 테스트베드 구축으로 대한민국 미래산업 중심으로 만들고 새만금을 풍력·태양광·조력 에너지 기반 RE100 국가산업단지 조성한다. 새만금 SOC(사회간접자본) 조기 완성도 약속했다.

특히 그는 청년이 모이는 자선운용 중심의 금융특화도시를 조성하고 공공의대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후보와 민주당은 전주시를

비롯해 도내 14개 시·군의 '우리 동네 공약'을 제시하고 지지를 호소했다.

우리 동네 공약은 △노후화된 전주 시외버스터미널 이전(전주) △군대 문화 비엔날레 유치 지원(군산) △식물 박물관 건립 지원(익산) △첨단의료복합 산업단지 조성 추진(정읍) △공공의대 설립 추진(남원) △중추산업 혁신클러스터 추진(김제) 등을 목록에 올렸다.

민주당 전북자치도당 선거대책위원회는 "당 차원의 공약 점검으로 최종 발표가 늦어졌지만 전북의 이번 대선 공약을 계기로 전북이 한층 발전되는 데 기여하는 민주당이 되겠다"고 밝혔다. /뉴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지난 23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를 맞아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을 찾아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

"상생의 정신으로 도정 운영"

김관영 도지사,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 참석

노 전 대통령 기려... 권양숙 여사 예방·묘역 참배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지난 23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를 맞아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을 찾아 고인을 추모했다.

이번 추도식은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를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를 주제로 봉하마을 생태문화공원 특별무대에서 진행됐으며, 우원식 국회의장의 추도사와 문정인 전 통일외교안보특보의 발언, 100인 시민합창단의 추모 공연 등이 이어졌다.

김 지사는 추도식에 앞서 권양숙 여사를 예방해 노 전 대통령의 국정철하

과 신념을 되새기며 고인의 뜻을 기렸다. 이어 오후 2시부터 열린 분향사에서 3천여 명의 국민과 정관계 인사들과 함께 헌화와 분향을 하며 묘역을 참배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노 전 대통령께서는 이념과 진영을 넘나드는 통합의 정치를 실현하고자 하였고,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하신 분"이라며, "그 정신을 이어받아 갈등보다는 협력, 대립보다는 상생의 가치를 전북 도정에 녹여내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복지 체계 개선하겠다"

김관영 지사, 익산 모녀 비극에

익산에서 생활고를 비관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모녀 사건과 관련해,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복지 체계를 전면 개선하겠다"며 책임 있는 자세를 밝혔다.

김 지사는 지난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익산에서 두 모녀가 극한 상황에 내몰려 안타까운 선택을 하셨다. 도시 사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며 "복지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도민이 더는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현행 복지 제도가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받을 수 없는 구조여서, 실제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분들이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획일적인 기준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도는 우선 전 시·군을 대상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위기에 놓인 가구를 찾아내고,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국가 복지 제도에 대한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하고, 저출생과 고령화에 대응할 수 있는 복지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그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도민 누구도 외롭고 힘든 상황에 홀로 남겨지지 않도록 상생의 복지공공체를 실현하겠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를 전했다. /이만호 기자



토론회 앞두고 기념촬영하는 대선 후보들

지난 23일 서울 영등포구 KBS본관 스튜디오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1대 대통령선거 2차 후보자 토론회 시작에 앞서 각 정당 대선 후보들이 기념촬영을 하기 위해 자리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민의힘, 권영국 민주노동당,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

지난 23일 서울 영등포구 KBS본관 스튜디오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1대 대통령선거 2차 후보자 토론회 시작에 앞서 각 정당 대선 후보들이 기념촬영을 하기 위해 자리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민의힘, 권영국 민주노동당,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 (사진=뉴스1 제공)

전북 시민·예술인 등 "이재명 후보 지지한다"

임실지역 체육인들도 힘 보태

제22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전북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지지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전북 시민·예술인들 "국민이 나라의 주인"

전북특별자치도내 시민사회단체와 문화예술계를 대표하는 인사 11만 5,000여명이 지난 22일 오전 10시 30분, 전주한옥마을 내 전주향교에서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한 지지를 공식 선언했다.

이번 지지선언은 전북 지역산인회, 협동조합, 예술인 단체, 자원봉사 조직 등 다양한 시민사회 대표들이 공동 주최했다.

행사에 참석한 이재명 후보 총괄특보단 수석부단장 안호영 의원은 "오늘 전북의 정신과 혼을 지켜오신 시민사회와 예술계 12만 여분의 지지 선언은,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에 큰 용기를 안겨주는 역사적인 장면이다"고 감격했다.

아울러 "이번 선언은 후보에 대한 단순한 지지를 넘어,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진정한 태평성대, 권력의 국민을 섬기는 새로운 시대를 향한 선언"이라며 "전북의 목소리가 중앙정치에서 더 크게 울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북선관위, "선거인명부 확정, 투표안내문 등 발송"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전북선관위')는 22일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선거인명부를 확정하고, 매세 시부·군부 '대상'을 수상했으며, 전주시와 고창군은 '최우수상', 정읍시와 정수군은 ' 으뜸상'을 수상했다. /이만호 기자



임실지역 체육인들이 지난 23일 오전 임실군 다목적체육관 앞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있다.

이번 선언은 5월 14일 서울 탐골공원에서 시작된 문화예술계 지지 선언에 이은 전국 릴레이 지지 행사의 일환으로, 광주, 대구, 부산에 이어 전주까지 이어지고 있다.

▲임실지역 체육인들 "생활체육진흥·균형발전 공약에 공감"

임실지역 체육인들도 지난 23일 500명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한 공개 지지를 선언했다. 체육인들은 이날 오전 9시 임실군 다목적체육관 앞에서 간담회 형식의 회동을 갖고 "지역 체육 현장의 오랜 숙원이었던 공공체육시설 확충, 체육지도자 처우 개선, 농촌형 스포츠클럽 활성화 등 현실적인 정책을 가장 명확

히 제시한 후보가 이재명"이라며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지역 체육인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체육인 스스로의 미래를 선택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밝혔다.

이번 지지는 임실군체육회 공식 명목이 아닌 '임실군 체육인 일동' 명의로 이뤄졌으며, 선언 과정에 공공예산이나 자치단체 자원은 일절 사용하지 않았다. 이는 체육계의 정치적 중립성을 존중하고 선거법상 논란을 피하기 위한 사전 조치로, 행사 전 선관위 유권 해석을 참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만호 기자
무주=전문선기자
임실=진홍영기자

를, 시각장애 선거인 2,350명에게는 점자형 선거공보를 발송한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 선거공보 및 10대 공약 등 정보는 정책·공약마당(http://policy.nec.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나 꼼꼼히 살펴보고, 투표안내문으로 자신의 투표소 위치를 확인한 후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만호 기자

'사람 사는 세상, 그 약속 지키질 것'

민주 도당,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 맞아

푸르름이 짙어가는 5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16주기를 맞아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이 고인을 기리며 '사람 사는 세상'을 향한 약속을 되새겼다.

전북도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은 지난 23일 발표한 논평에서 "봉하 들녘의 바람에 실려 오는 그리움 속에서, 대통령님이 남기신 '더불어 사는 세상'의 가치를 다시 깨닫는다"며 고인을 추모했다.

공보단은 특히 "노무현 대통령의 철학은 오늘날 민주주의 위기 속에서 더욱 절실히 다가온다"며 현 정권에 대한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들은 "윤석열 정권은 '노무현 정신'을 외면하고, 오직 '그들만의 세상'을 만들려 하고 있다"며 "국

민의힘은 권력을 사유화했고, 검찰 권력은 정적 탄압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무현 대통령이 생전에 남긴 민주주의는 깨어 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으로 지켜야 한다"는 말을 지금 우리에게 다시금 큰 울림을 준다"며 "국민을 배반하고 계엄을 운운한 윤석열 정부에 맞서, 국민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임을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도당은 끝으로 "노무현 정신을 계승해 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정당이 되겠다"며 "사람 사는 세상, 모두가 더불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앞장설 것을 엄숙히 약속드리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전북자치도 "동물보호 현황 점검"

26~30일 도정 주요일정 발표

전북특별자치도 김철태 대변인(사진)은 23일 오전 도청 기자회견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26일부터 30일까지 예정된 전북도청의 주요 일정과 정책 추진 계획을 밝혔다.

26일 오후에는 김관영 도지사와 동물보호센터장이 익산시 삼기면에 위치한 익산 동물보호센터를 방문해 동물보호 현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도는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여 동물복지 행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같은 날, 전북자치도는 에너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503억원을 투입해 6개 시군 7개소에 LPG 배관망을 설치하는 사업계획을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27일에는 환경산림국 주관으로 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혁신도시 산하에 대한 약취 저감 방안과 여름철 산사태에 대한 인명 및 재산 보호를 위한 대책 상황실 가동 계획이 브리핑된다.



연재난 긴급구조 대책이 함께 발표된다.

29일에는 전북 건축사회 이상열 회장과 임원 4명이 김관영 도지사를 만나, 최근 산발로 피해를 입은 정읍과 고창 주민들을 위한 성금 1천만 원을 전달하는 기탁식이 예정돼 있다.

30일에는 중소기업 디자인 지원사업 개선을 위한 현장점검과 함께 전북디자인센터의 발전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

김철태 대변인은 "전북자치도는 앞으로 도정 브리핑을 통해 정책 추진 내용을 투명하게 공유하고,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